

연대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실제

: 국제성, 민족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박명규 · 임수진 (서울대 사회학과)

국문요약

연대과학기술대학은 탈냉전과 국제화가 열어놓은 기회의 공간 속에서 '국제적 민족대학'이라는 독특한 꿈과 비전이 구체화되고 실현된 실체이다.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연대과학기술대학은 급변하는 국제화의 격랑 속에서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학 제도가 어떻게 구축되고 형성되었으며 현지 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적응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연대과학기술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해준 시대·사회적 흐름과 개인 및 공동체 비전의 형성 과정, 그리고 대학의 설립 비전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그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세 가지 특성—국제화, 민족 중심, 통합적 공동체—이 급변하는 중국 사회와 조선족자치주의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요소로 작용하였던 국제화와 민족 중심이라는 가치가 대학 내외의 변화에 따라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통합적 공동체의 단절과 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상황을 극복하고, 긴장 쟁점들을 넘어선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동북아 역사에서 의미미한 역할을 담당하는 역사적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연대과학기술대학(연변과기대), 대학공동체, 국제화, 조선족, 통합

I. 서론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국적, 민족, 인종의 개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상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도 이런 흐름의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지역과 사회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의 공존 현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가 초래하는 이런 다문화 상황이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분리와 차별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경의 높이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정보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문제와 기회가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이하 연변과기대)은 동북아 지역에서 이런 세계화 흐름이 시작되던 시기에 설립되어 오늘까지 이 변화와 함께 존속해온 대학이다. 이 대학은 탈냉전과 국제화가 열어놓은 기회의 공간 속에서 독특한 꿈과 기대를 자임하면서 모험적 실험을 감행했다. 전지구적 ‘코리아 디아스포라 연결망’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중국 조선족의 발전 및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꿈의 폭과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단절이 지속되는 남한과 북한, 또 협력과 긴장이 함께 커져가는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며 연변과기대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독자적인 지향과 통합적 공동체성을 표방하는 국제적 대학캠퍼스가 대학 외부의 변화와 어떻게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직면한 안팎의 긴장, 즉 국제화와 민

족 정체성의 관계, 구성원 간의 통합 역량과 공동체성의 유지, 그리고 지역화의 진전 등 긴장을 일으키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민족대학이라는 공간이 국경을 넘는 화해와 교류, 평화의 진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본다.

II. 이론적 논의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와 대학이 맺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교육과 연구를 비롯한 대학운영의 틀이 국제적인 형태로 바뀌는 상황에 주목하는 고등교육 국제화 이론(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이다. Knight(1995)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이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서비스 기능을 다국가·다문화 차원과 통합시켜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교육기관의 활동(activity), 능력(competency), 정신(ethos), 절차(process) 등에서 다국가 간, 다문화 간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려는 대학 당국의 결정이 강조된다.¹⁾ 실제로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 특별히 대학 캠퍼스의 국제화는,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대학 주체의 전략적 대응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본다면 1980년대 말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유입을 시작으로,²⁾ 1990년 이후 가시화된 국제결혼의 증가, 한국 기업의

1) Knight, Jane, and Hans de Wi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Hans de Wit, e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msterdam: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995).

세계시장 진출 등으로 다민족, 다인종 인구가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 캠퍼스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국의 대학들에 중국 유학생을 필두로 한 다국적 학생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런 캠퍼스의 국제화가 학교의 재정과 위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핵심 기능으로 강조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대학별로 ‘국제화’를 중요한 운영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늘어났고, 대학의 평가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외국인 교수 채용, 영어 강의 개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배려 등이 대학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둘째는 대학보다는 사회 자체의 통합에 주목하는 고전적인 사회통합이론(Theory of Social Integration)이 있다. 사회통합이론은 공동체적 삶이 가능한 통합 기반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³⁾ 통합의 단위는 조직일 수도 있고 작은 지역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집단, 문화집단, 지역집단, 계층집단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통합하는가가 핵심적 과제다. 중요한 제도들, 예컨대 종교, 기업, 학교 등의 역할도 이런 관점에서 분석되는데 특히 다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치나 문화, 제도의 형성을 중시하게 된다. 전형적인 다문화, 다종족 사회인 미국에서 ‘멜팅 팟(melting pot)’ 기능이 강조되고 대학에서 소수자들을 위해 입학과 강좌의 배려를 제도화했던 것은 그런 맥락이었다. 이후 멜팅 팟이 사실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샐러드 볼(salad bowl)’ 모델이 그 대안으로 강조되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개개인들을 보호하고 통합시켜야

2) 설동훈,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와 미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엮음, 『노동인력의 세계화』(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pp.225~248.

3) Blau, Peter M., “A Theory of Social Integ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5, no. 6 (1960), pp.545~556.

한다는 기본적 관심은 유사하다.⁴⁾ 한국의 사례에서 보면 1990년대 이래 한국의 다문화화가 진행되면서 학교나 언론 등에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었다. 정부는 다문화 교육과 다종족적 가치를 교육 정책에 새로이 추가했고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단일민족적 가치, 민족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특별히 중시하는 정책이나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부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⁵⁾

세 번째로는 대학 자체가 보편적 이념을 지향하는 사회 내 독자적인 공동체임을 특별히 주목하는 관점이 있다. 근대 이후 대학이 국가의 주요 기구로 간주되고 국민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단적 기능이 중시되긴 했지만 본래 대학이 표방하는 지식, 진리, 가치, 기술 등은 전 인류 차원의 보편성을 지닌 것이다. 국가의 정치적 압력이나 시장의 경제적 유인이 대학의 가치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위 '상아탑 정신'이 자리 잡은 것도 대학 제도의 이런 독자성, 보편성, 고유성을 강화시켰다. 미시적으로 학교공동체 이론은 학교라는 제도가 공동체적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Lounsbury와 DeNeui(1996), Sergiovanni(1994), Gail Fruman(2002) 등은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지역이나 국가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수 있지만 학교 단위의 공동체 의식은 독자적으로 정립 가능하고 나아가 이를 촉진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⁶⁾ 특히 학교 구성

4) Deborah E. S. Frable, "Gender, Racial, Ethnic, Sexual, and Class Ident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1997), pp.139-162.

5) 박미희·홍백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20권 3호(2010), pp.27-50; 김미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5호(2014), pp.269-302.

6) Anthony S. Bryk, Valerie E. Lee and Peter B. Holland,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원 내부의 ‘공동체 의식(a sense of community)’은 일반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독특한 공동체 의식, 정체성, 통합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에서도 대학은 사회 일반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도나 공동체로 인식된 측면이 강하다. 한국의 대학 설립 초기, 대학은 보편적 문명, 서구적 가치, 근대적 과학기술을 담지하는 조직으로 간주되었기에 민족주의자들은 대학설립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 서구화, 과학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민간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억제했다. 서양 선교사들은 교육 기능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문명의 요소가 한국 사회 내에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내면화될 것을 기대했다. 각각의 관점은 다르지만 대학이 독자적인 문명과 정신의 담지체로서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던 것이다. 한국의 대학 공동체와 관련하여 류승아(2014)는 McMillan & Chavis(1986)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⁷⁾ 즉,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욕구 충족,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 의식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여, 대학 공동체 의식이 개인과 사회의 안녕에 영향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⁸⁾ 김범규·주철안(2006)은 한국 학교공동체의 독특한 개념 요인을 정리하였는데, 연대, 헌신, 이해·존중, 소속감, 다양성, 협력, 책임, 평등, 배려의 가치들이 학교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⁹⁾

연변과기대는 이 세 차원에서 모두 접근해볼 수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연변 지역을 비롯한 동북아의 거대한 변화와 이 대학의 역사는 뿔 수

7) David W. McMillan and Davi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1986), pp.6-23.

8) 류승아,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8권 2호, pp.43-60.

9) 김범규·주철안, "학교공동체의 개념적 요인 탐색," 『지방교육경영』 제11권 (2006), pp.1-20.

없이 연결되어 있다.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시기에 따라,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의 변화가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대학의 독자성이 더 부각되기도 했다. 연변과 기대 20여 년은 급변하는 국제화의 격랑 속에서 국제 캠퍼스,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학 제도가 어떻게 스스로의 보편성을 지키면서 다문화 상황에 대처하고, 또 현지 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적응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역동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특별히 교육행위를 계획하고 제도화하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회-대학 연계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대과학기술대학의 공식적 문헌과 홈페이지 자료,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학의 활동, 또 부분적으로는 필자들이 현지에서 관찰 및 인터뷰한 바를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Ⅲ. 시대적 물결과 세 주체의 결합

1. 시대적 조건: 탈냉전과 세계화

연대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있는 중외합작대학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 특별지역구인데, 1991년 중국 최초로 중국 대학과 외부 교육기관이 협력한 중외합작 교육기관으로서 연대과학기술대학의 건립을 결정했다. 연변과기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전지구적 탈냉전과 세계화, 그와 맞물린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동구권의 해체가 가시화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되며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연결되리라는

예측이 붓물 터지듯 쏟아지던 시대적 상황이 없었더라면 연변과기대의 설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 특히 연변이 위치한 동북3성과 남북한 접경지대는 1990년대 이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탈냉전, 개방화, 세계화의 격랑이 기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의 규모나 깊이에서 이 지역을 능가할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1980년대 말까지 중국 내의 인구가동은 크지 않았고 동북3성은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는 조선족 자치지구였다. 냉전 하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남한과 북한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재일조선인,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에도 상호작용이나 연계가 거의 없었다. 1980년대까지 이 지역은 국가 권력과 국경,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그어놓은 선에 의해 단절되어 있던 곳이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탈냉전, 세계화가 중국의 본격적 개혁개방과 이어지면서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¹⁰⁾ 불과 30년이 되지 않는 시기에 연변을 비롯한 동북3성의 모습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변했다. 우선 연변을 포함한 조선족자치구역에도 대규모의 변화가 나타났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조선족 자치단위, 농업 중심의 마을공동체는 급속히 해체되었다. 연변자치주가 설립된 1950년대 총인구의 50% 이상을 점했던 조선족의 비율은 현재 약 36%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졌고, 이 지역을 오가는 한국인 및 외국인의 숫자는 증가하였다.¹¹⁾ 지방의 조그만 공항에 불과했던 연길공항은 여름 기간 하루 수십 차례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국제공항으로 변모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대남·대북 관계 역시 변화

10) 이재하·김석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4호(2007), pp.461~475.

11) 위의 글, pp.461~575; “中 연변자치주 조선족 인구 계속 감소…비율은 상승,” 『연합뉴스』, 2015년 3월 10일.

하였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비롯한 경제난이 장기화되자 전통적인 북·중 간 교류·협력은 약화된 반면,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이동의 양상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많은 조선족이 중국 내 타지로 이동하는 대신 한국으로 이동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연변으로 진출하여 여러 형태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¹²⁾ 이러한 추세는 중국 정부 차원의 동북3성 개발 계획과 맞물리게 되면서 연변지역의 국제화,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¹³⁾

이런 변화의 시기, 남북한 관계 역시 호전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 기본합의서에 조인했고 유엔에 동시가입을 결정했다. 또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이 약속되기도 했다.¹⁴⁾ 민간 차원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등 북한의 혹독한 경제난을 계기로 탈북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을 도우려는 민족주의적 동포애가 조성되며 연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공식적이지는 않으나 북한 주민, 조선족 사회, 그리고 남한 주민 사이의 다양한 연계가 나타나기도 했고, 물자와 정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교류되기 시작하였다.¹⁵⁾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면서 이 지역은 남북

12) 김화선, “조선족 농민의 비농화와 국제이주: 연길시 M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36집(2012), pp.149~186;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2006), pp.258~298.

13) 권오국,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3권 1호(2011), pp.229~69; 이충배·박선영, “중국 동북3성 기점 국제복합운송루트 개발과 발전 방안,” 제23집 4호(2007), pp.91~114.

14) 황지환,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한반도 리더십 변수의 재검토,” 『국제관계연구』 제18권 1호(2013), pp.39~65.

15) 박형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개념과 원칙,”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2호(2011), pp.3~9.

한을 잇는 실질적인 교두보로서 성장하였다. 지구화의 긍정적 효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커지던 시기에 연변과기대가 출범한 것이다.

2. ‘중외합작’이라는 메커니즘

연변과기대는 중외합작대학(中外合作大學)이다. 행정적으로 ‘중외합작’이라고 표방되는 이 설립 메커니즘은 국제화하는 시대 상황을 활용하는 동시에, 또한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여기서 ‘외(外)’라는 말은 외국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 외국인, 외국 기술과 같은 다양한 외부 행위자를 포괄한다. 이 ‘중외합작’이라는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외부인은 중국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얻고, 중국은 외부의 자원과 기술, 인력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삼았다.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에 대하여 정리한 구자익 외(201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외합작대학 추진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중국 개혁개방에 따른 내부적 환경의 변화, 2) 중국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시장화 및 시장개방에 따른 내부 사회의 경제화 및 국제화, 3) 중국 정부의 국제사회 진입, 4) 중국 정부의 교육 자원 확충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대내외 상황에 따른 중국의 중외합작 교류는 역사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1978년부터 1981년의 ‘회복단계’로서, 1967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문화혁명 때문에 빚어진 교육 체계 단절의 극복 및 대학입시 제도의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해외 국비유학생 파견을 확대하는 등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해외 유명 학자를 초빙하는 등 외국 교육 자원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중국

¹⁶⁾ 구자익 외,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6(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배경을 마련하였다. 둘째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발전단계’로서, 중외합작학교의 운영을 시작하여 중외합작교육의 시발점이 된 시기이다. 이후 2001년부터는 ‘심화단계’로서,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 교류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된다. 특별히 2003년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를 통해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합작 대학 상호간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한다.¹⁷⁾

중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자료에 따라 주요 도시와 각 성(城)별 중외합작기관 및 프로그램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합작대학 2곳과 프로그램 39개를 보유한 지린성의 합작현황은 평균 정도라 볼 수 있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이 연변대학과 계약한 합작년도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공식적으로 기록된 중국 교육부에 나타난 중외합작기구 53개 중 최초의 중외합작대학으로 볼 수 있다.¹⁸⁾ 연대과학기술대학은 1988년 연길시 정부가 현재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인 김진경 총장을 대신하여 학교 설립 투자 계획서를 연변주 당위와 주 정부에 제출하고, 연길시 정부와 김진경 총장 개인이 중국연변조선족 기술전문대학 설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되었다. 1990년 2년제 중국연변조선족 기술전문대학을 4년제 기술대학으로 변경하고, 1991년 중국 지린성인민정부 및 중국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직업기술학교 개설을 각각 비준 받는다.¹⁹⁾ 1992년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개칭되었으나, 1996년 연변대학에 병합되며 현재의 연대과학기술대학으로 최종 개칭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

17) 위의 책, pp.32~34.

18) 합작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몇몇 대학은 제외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教育部予以資格認定的中外合作辦學單位: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detail/389>>.

19) 연대과학기술대학, “연혁,” (2012);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history>.

변과학기술대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약어의 경우 연변과기대로 통용된다. 다른 합작대학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 합작을 추진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연변과기대의 설립은 중국 교육 당국이 초창기 실험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선례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기관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초보 단계에서 추진했던 중국 정부가 연변과기대의 설립을 통해 많은 제도를 구비한 다음, 이를 선례로 하여 이후 중외합작대학을 지속적으로 설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세 주체의 합류

시대적 환경이 긍정적이라 해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는 주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연변과기대의 설립을 가능케 한 데에는 다음 세 주체가 협력적으로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탈냉전과 함께 전 지구에 산재해 있던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부각되고, 이들 사이의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지닌 주체가 등장했다. 20세기 한반도 역사의 애환과 맞물려 있는 각 지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탈냉전의 환경에서 비로소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찾고, 고향을 방문하며, 새로운 생활 기회를 찾을 가능성을 보았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었고, 일본의 재일조선인,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에 소통과 연계가 강화되었다. 낡은 민족감정과는 구별되지만 뿌리와 고향, 조국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등장하고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분출했던 것도 이 시기이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설립을 추동한 김진경 총장은 스스로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런 꿈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또한 그는 다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서와 기대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연변과기대의 설립 당시 조선족의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민족대학을 표방하였고, 이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한국과 재미한인 사회에서부터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⁰⁾

둘째로는 중국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탈냉전의 시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와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연변과기대는 중국이 외국대학과 합작을 추진함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기술 수용 및 학문 현대화 의지가 담겨있었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제도적 위치 및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교육 당국의 중외합작대학 제도 설립의 추진 역사와 배경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혁명이 종료되고 교육기관의 회복과 발전을 추진한 중국 정부는 낙후된 교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소규모 학술교류 프로그램부터 시작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는 현재 중국 내 외국 학술기관과 연계하여 설립된 합작대학으로는 총 50여 곳,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850여 개를 보유한 대형 프로젝트로 성장하였다.²¹⁾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합작대학을 설립한 지역은 상하이(上海)시이며 이곳에 총 9곳이 설립되어 있다. 합작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170개 프로그램을 설립한 헤이룽장(黑龍江)성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변과기대가 위치한 지린성의 경우, 경영학과 정보과학을 중심으로 한 지린-램톤대학

20) 허련순, 『사랑주의』(서울: 흥성사, 2012);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연합뉴스』, 1994년 2월 28일.

21)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학부 중외합작기구 및 프로그램(本科中外合作辦學機構與項目[含內地與港台地區合作辦學機構與項目名單]” (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orglists/2>).

(吉林大學萊姆頓學院)과 공학 및 과학기술, 경영학을 포함한 연대과학기술대학까지 2곳의 중외합작대학이 존재한다.

셋째로 중국 조선족 사회의 주도적인 변신의지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은 중국 내의 거대한 인구 이동을 초래했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동반했다. 전형적인 농촌 사회의 모습을 지녔던 조선족 자치주는 이 거대한 변화를 거치면서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연변의 조선족 공동체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를 겪었는데 다수의 청년들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의 도시로, 또 많은 조선족이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진출했다. 연변과기대가 조선족의 자기발전, 국제화된 인재양성을 표방하면서 설립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조선족 공동체의 변신의지, 발전을 향한 열망이 담겨있었다.

이런 주체적 조건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세 개의 서로 다른 꿈이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회한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과 민족 통합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외부의 자본과 기술, 정보와 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개혁개방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연변자치주 조선족에게는 연변 지역의 발전, 조선족 공동체의 국제화,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제도 창출의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 세 주체의 꿈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연변과기대라는 독특한 대학이 출현할 수 있었다.

IV. 설립비전의 구체화와 전략의 수립

1. 제도화의 과정

1989년 공식적인 설립준비를 시작하여 개교, 교명 변경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기까지 연변과기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연변과기대의 대내외 조직구성과 변화를 고려하면, 연변과기대의 역사는 크게 설립기, 정착기, 발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설립기는 1989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연변과기대가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 및 교육 당국과 설립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학부 교육 체계를 정비하며, 연변대학에 편입되어 현재 연변과기대의 체계를 정비한 시기라 볼 수 있다. 1988년 김진경 총장은 대외문화교류중심을 통해 학교 설립 의향서를 검토 받은 후, 주 당위원과 주 정부에 제출하였다.²²⁾ 이를 통해 1989년 2월 4일, 연길시 정부가 갑(甲), 김진경 총장이 을(乙)로서 합작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연길시 정부는 학교 부지 제공,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건설을 담당하였고, 김진경 총장이 학교 건축비 및 학교 운영비 등 재무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학교 수업 언어는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²³⁾

22)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1); 허련순, 『사랑주의』, pp.141~147.

23) 연변과기대의 조선어/한국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어(韓國語)와 조선어(朝鮮語)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다. 학과 역시 조선어과(朝鮮語系)가 아닌 한국어과(韓國語系)로 표기된다.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大學要覽 2010-2011』(延吉: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2010); 서정섭, “중국 연변 조선어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16권(2005), pp.205~230 참조.

중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설립 비준 허가서는 종합대학이 아닌 기술학교 설립 비준 허가서로서 1991년 최종 취득하였고, 그 다음 연변자치주 정부를 거쳐 지린성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92년 ‘직업기술학교’에서 ‘과학대학’으로 개칭된다.

이러한 문서상의 절차 외에 실제 캠퍼스의 건축은 1989년 중국 연길시 정부와 기술전문대학 설립 계약을 체결한 직후 본부동과 학사동이 착공되며 시작되었다.²⁴⁾ 이후 대학 식당과 기숙사동의 건축을 착공하고, 1992~93년 사이에 대학 내 주요 건물의 건축이 완성되었다. 건축 완성 직후 1993년 연변과기대 4년제 본과(本科) 및 2년제 전과(專科)가 정식 개교하였다. 이 설립 시기, 설립 자금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 등지의 모금 활동을 통해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되었는데, 한국의 학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대학 설립 추진 위원회 및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이사회가 선출되어 자금을 관리하였다.²⁵⁾ 설립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한국과 미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많이 투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연변조선족 기술대학의 재단 설립 및 법원 등기는 미국에서 이행된 반면, 중국 연변조선족 기술대학 후원회의 승인은 한국 외무부에서 사단법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립에 필요한 주요 외적 기반 자원, 토지, 수도, 전기 등은 중국 정부에서 제공받았고, 학교 설립 내부 기반시설은 해외 자원을 통해서 구성되었다.

초기 상학부와 공학부 2개 학부 내 대외경제무역학과, 경영정보관리학과, 전자전산학과, 기계공학과, 석유화학공학과 5개 학과로 설립된 연변과기대는 첨단 과학기술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어 설립되었다.²⁶⁾ 4년제 정규대학과는 별도로 산하에 2년제 전문대학과정으로 실용영어학과와

24) 연대과학기술대학, “연혁” (2012);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history>.

25)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허련순, 『사랑주의』, pp.155~203.

26)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실용무역학과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이후 4년제 대학 내로 통합되었다. 초기 연대과학기술대학은 국내의 동포들의 성금으로 설립되었음을 강조하고, 중국 내 조선족자치주에 설립된 해외민족대학이라는 특성이 크게 부각되었다.²⁷⁾ 한국, 미국, 중국 내의 다양한 대학교와 교류협력을 체결한 연변과기대는 1996년 최종적으로 연변대학에 편입되며 ‘연대과학기술대학’으로서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연변과기대는 종합대학인 연변대학교 내 하나의 학원(學院: 단과대학)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2기 발전기는 1997-2004년의 시기에 해당한다. 1996년에 연변대학 내 한 학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연변과기대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1997년 4년제 본과 1회 졸업식이 거행되고, 중국 정부에서 임명한 리주석(李柱石) 원장이 부임하며 연변과기대는 보다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측에서 파견한 원장이나 부원장, 당서기 등은 주로 2~3년을 주기로 사임하거나 부임하였는데, 1997년에 임명된 리주석 원장은 2002년까지 약 6년간 재임함으로써 대학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외 협작을 통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가속화된 2000년 전후의 시기를 고려하면, 당시 국가 전반적으로 외부 교육 체계에 우호적이었던 사회분위기 역시 연변과기대의 안정적인 발전과 양적 팽창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연변대학과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한국어과가 신설된 이래, 기계설계제조 및 자동화, 간호학, 독일어, 통신공정학과 등이 신설되며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학과가 개설됨에 따라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이화생활과학연구소, 등소평연구소 등 학부 외 연구소가 설립되며 연

27)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동아일보』, 1993년 1월 27일; 『매일경제』, 1991년 10월 31일.

구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이렇게 기관이 확장되자 적극적인 해외 교수초빙이 다양한 국가에서 가속화되어 교직원 역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학생 기숙사와 교직원 기숙사가 다수 신설되고, 교직원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는 등 학교 내 교직원의 생활편의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학교공동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⁸⁾

한편 2005년도 이후 정착기로 설명할 수 있다. 2005년도 이후 연변과기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국제적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정기적인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며 보다 국제적인 특성을 강화하였다. 2004년부터 매년 유스트 국제 심포지엄(YUST International Symposium)이 개최되었고 국제적 학술 행사를 통해 학술적 연결망을 강화했다. 또 심포지엄을 통해 수집된 논문을 바탕으로 2012년 국제 학술지를 창간하며 국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²⁹⁾ 국제 학술 교류의 경우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몽골, 캄보디아, 가나, 독일, 프랑스 등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다양한 대륙 내의 교육 기관과 함께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다.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해외 자매결연 기관은 총 24곳 남짓인데, 이 중 19개 기관이 2005년 이후에 교류협력을 체결하였다. 2007년 연변과기대는 중국 교육부에 의해 중외합작기구로서 재비준을 받고 중외합작관학 허가증을 받게 됨에 따라, 중국 내 가장 오래된 중외합작대학의 위상을 지켰다. 초기 40명 정원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던 연변과기대는 2005년 이후 매년 400명 정도의 신입생이 등록하는 연변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개교 20주년을 맞았던 연변과기대는 현재 학부 9개, 학과 14개, 연구소 40여 개를 보유한 학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졸업생 5천여 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천 8백여 명

²⁸⁾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1).

²⁹⁾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ngineering and Management"; <<http://www.ijgreen.org>>.

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다.³⁰⁾

2. 캠퍼스의 전략: 국제화, 민족성, 통합 공동체의 추구

연변과기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율적 대학공동체로서 성장하고 또 주변에서 인정받기 위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는 연변과기대만의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른 대학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조된 연변과기대의 독자적 특성으로 국제성, 민족성, 통합적 공동체성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국제적 특성이다. 연변과기대는 설립 초기부터 캠퍼스의 국제화를 강조했다. 설립 당시부터 교수진, 사용 언어, 교육방식이 모두 국제적임을 강조하였다. 10여 개 국가에서 초빙된 다양한 국적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의 공식 언어 역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가지였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연변과기대의 특성은 주로 학교 홍보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데, 캠퍼스의 가장 대표적 특성으로 연변과기대가 세계화 발판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캠퍼스라는 점을 홍보한다. 홈페이지에 서술된 학교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런 국제화 전략을 잘 보여준다.

“세계화의 발판: ... 세계 13개국에서 3백여 명의 우수한 교직원 ... 학생들 역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고에서 유학 음에 따라 다국적 성격 ...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본교는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를 캠퍼스의 공용언어로 사용...”³¹⁾

30) 연대과학기술대학, “주요현황: 재학생 현황”;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tatus).

연변과기대는 개교 당시부터 이러한 국제적 특성이 학생들의 취업 현실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교 당시 학교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끝난 4년제 정규대학의 첫 신입생 선발과 관련, 모집 정원 2백 명에 모두 652명이 지원, 평균 약 3.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대외경제무역학과와 의 경우 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면서 “산업기술훈련학교 졸업생들도 국내 회사에 취직했거나 해외 취업 확정, 또는 상급 학교 진학 등으로 전원 취업했다”고 강조했다.³²⁾ 이러한 학교의 국제성과 실무성은 보도자료, 책자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이런 국제성은 중국의 대부분 대학이 문화혁명의 여파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낙후해 있던 시기에 특히 유효하고 두드러진 것이었다.³³⁾

두 번째로 연변과기대가 활용한 전략은 조선족을 위한 민족대학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연변과기대는 설립 당시부터 조선족을 위한 민족대학의 건립임을 언급하였다. 개교 당시 학장은 인사말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뜻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교포들의 성금으로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민족대학”이라고 강조하고 “본 대학의 설립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 교포들의 교육과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그리고 한중 우호협력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³⁴⁾ 연변이 조선족자치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민족대학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보다 확장된 것이었다. 이는 단지 연변의 조선족

31) 연대과학기술대학. “학교특색” (2012);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pecific>.

32)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33) 『동아일보』, 1997년 7월 3일; 『연변일보』, 2012년 9월 14일; 지역주민 문답, 2014년 7월 15일.

34)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허련순, 『사랑주의』.

을 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중 우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었다. 또한 동일한 차원에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연결망을 자산화하는 데에도 민족이라는 상징은 적극 활용되었다. 실제로 연변과기대는 대부분의 설립 자본과 교육 과정, 인적 구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외국인 교수진 역시 외국 국적을 보유한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적이 다양한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존재는 흥미롭게도 국제성과 민족성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 언어 능력의 강조로도 이어졌는데, 협력 기관인 연변대학의 경우 수업 내 조선어 사용이 10% 미만인 데에 비하여 연변과기대는 전 수업 과정의 50% 이상이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변과기대가 민족성을 숨기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학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강조하였으며, 그것이 이 대학의 적극적인 전략이었음을 감지하게 해 준다. 또한 조선족 소수민족 대학으로서 중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연변대학의 조선족 학생 비율이 40%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³⁵⁾ 70% 이상의 조선족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은 학생 구성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조선족 중심의 대학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로 연변과기대가 강조한 바는 캠퍼스 내 통합적 공동체의 형성이었다. 연변과기대는 다른 어느 대학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 구성원 간의 협력과 통합을 강조했다.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인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전인격적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찍이 큰 관심을 끌었다. 연변과기대가 고등교육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학교의 중요한 특성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통합적 캠퍼스(campus integrity)’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특이하다고 할 만하다. 연변과기대의 주

35) 『동아일보』, 2013년 1월 15일.

요 이념 중의 하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³⁶⁾ 이러한 점은 학교 상징물인 본관 앞 ‘사랑주의(Love-ism)’ 기념비나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을 이어주는 1.4킬로미터의 학교 대표적 상징물인 ‘연결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성원들 간 차별 철폐, 정직, 포용, 섬김, 협력, 봉사 등의 가치를 홍보·지도하고, 캠퍼스 통합운동(Campus Integrity Movement)의 전개를 통해 정직하고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장려함으로써, 학생, 학생과 교수, 교수 간의 통합과 교류를 보다 강조하였다.³⁷⁾

이러한 부분은 비단 학교차원의 형식적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인 교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도 나타났다. 연변과기대는 전통적으로 교수와 제자 간 친밀한 관계가 특징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는데, 교수들이 학생들을 자택으로 빈번히 초대하여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³⁸⁾ 대학이 스스로 ‘진리의 전당’이라든지 ‘인격적 교육’을 내세우는 경우는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이나 정관에 이런 명분을 건립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요소가 대학의 핵심운영원리로 정착하는 경우는 드물다. 연변과기대는 인격주의라고 할 정도로 긴밀한 교수-학생 관계를 추구하였다. 주로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는데도 이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데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국적의 교수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하였기 때문에 연변과기대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이러한 환경 역시 서로 간에 밀접한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교 초기 연변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참아가며 학교를 건축하고 학생들

36) 허련순, 『사랑주의』.

37) 연대과학기술대학, “특색”;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pecific>.

38) 교직원 인터뷰(익명1), 2014년 7월 24일; 학생 문답(익명), 2014년 7월 10일.

을 가르치고, 해외의 후원자와 조력자들을 찾아 나선 교직원의 헌신성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교직원의 헌신을 동반한 공동체 정신의 강조는 대학이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 유인이나 설비의 우수성 못지않은 독자적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1〉 본관 앞 기념비석 및 연결동



V. 비전의 현재와 미래: 긴장 쟁점들

건립 20여 년이 경과한 연변과기대는 학교 내외의 여러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설립 초기 누렸던 연변과기대의 독특한 비교우위 및 장점들이 지금은 중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성과 민족성을 결합하며 독자적인 대학의 공동체성을 구축하려던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또한 내부에서는 민족대학으로서 학생의 90% 이상이 조선족이었던 건립 초기에 비해, 최근 조선족 입학비율이 50% 수준까지 감소할 정도로 학생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캠퍼스 문화와 교육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점차 조선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 표명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시점에서 연변과기대가 지니고 있던 비전과 특성과 관련하여 긴장을 일으키는 쟁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국제성 · 민족성의 독자적 가치 약화

그간 중국 내 연변과기대의 상징적 요소이자 비교우위의 핵심은 국제성에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및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결망에서는 조선족을 위한 민족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 두 성격이 큰 장점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국제성과 민족성은 연변과기대의 주요한 특성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연변과기대가 향유했던 비교우위는 현저하게 약화되

있고 다른 대학 및 기관들과도 국제성과 민족성을 두고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설립 당시와 학교 안팎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성을 뒷받침해오던 교수진의 다양성도 대학의 국제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연변과기대의 교수진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부임한 다양한 국적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국제성은 교수진의 다양성 못지않게 학과의 다양성, 학생의 다양성, 교육 과정의 다양성을 포괄하며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³⁹⁾ 1990년대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고 ‘국제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가 급격히 개방되고 여타 대학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교수의 다국적 배경이 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의 교환 방문, 다양한 해외 경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더 중시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장점만으로 캠퍼스의 국제적 특성의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서로 다른 언어의 사용이 국제적 언어 감각을 높이는 한편으로, 각 언어 집단 간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한국계 교수들은 친밀한 교류나 적극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상도 존재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연변과기대를 국제적 캠퍼스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지

39) 김진영, “국제 대학 순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 pp.1~26.

40) “[교수회의를 할 때는 학부장이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구요. 그 다음에 옆에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통역을 해줘요. 전달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폐회식하고 회의하고 할 때는, 말 많이 안 해요. 가까이,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좀 적절히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닌 교직원도 존재했다.⁴¹⁾

민족성에 대한 강조 역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족을 중시하는 정책은 학내 한족 학생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⁴²⁾ 또한 연변 자체의 민족 구성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연변대학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인정받기도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민족 중심적 관점에서 높은 비율의 조선족 학생을 보유하고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연변과기대의 정체성은 학생유치와 재원 확보에 중요한 자원이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해도 ‘한국어 강좌’가 연변과기대 뿐만 아니라 연변 지역 전반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함께 조선족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저하와 중국인 학생의 증대로 인해 학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중국어 사용의 압력은 커지고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교수진의 사명감도 남북관계의 교착 상황과 조선족과의 관계 설정에 놓인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변과기대의 민족적 관심을 통해 재정적 후원과 정서적 지원을 이끌어오던 방식도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민족담론이 드러내는 정치적 합의 때문에 전과 같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종래 연변과기대의 독보적인 정체성이자 장점이었던 국제성과 민족성의 조합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앉을 때도 그렇게 따로따로 앉아서, 한국어권 중국어권. 앉아서.” 교직원 인터뷰(익명2) (2014년 7월 24일).

41) “인터내셔널이라고 하기에는 한국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더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 [학부들만을 볼 때 … 인터내셔널 스쿨(international school)이라고 발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직원 인터뷰(익명3) (2014년 7월 24일).

42) “우리 조선족 래원(來源)이 줄어드니깐, 한족 학생을 받아들여야 되니깐, 한족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 우리는 중국 내에 있는 한국 특성화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교직원 인터뷰(익명4) (2014년 7월 18일).

2. 통합적 공동체 형성의 분화적 쟁점

연변과기대의 특성으로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을 인격적으로 결속시키는 독특한 공동체성이 있음은 이미 앞서 논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지금도 헌신적인 교직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단위의 공동체성 역시 여러 변화와 분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학생들이 친밀한 관계보다 개인적인 자율성과 개성, 자기만의 활동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대학공동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격적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설립 당시 연변 사회에서 찾기 어려웠던 각종 매체와 정보, 활동 기회들이 급증하였고,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조선족의 경제력 향상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 및 교수 의존도가 설립 초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졌으며,⁴³⁾ 이에 따라 대학 조직 및 교직원 주도적으로 형성되었던 인격적이며 긴밀한 공동체적 성격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조선족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정보화와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졌고, 개인의 성취동기나 개성 추구를 강조한다.

다른 대학에서 보기 어려운 인격적 공동체성이 연변과기대에서 가능했던 배후에는 30년 가까이 지속된 교직원의 헌신과 학생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상황 속에서 향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교수의 일방적 사명감과 윤리적 헌신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특유의 인격적 공동체를 지속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구성과 관심, 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을 포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전략 및 공동체적 비전이 필요하다.

⁴³⁾ 이성일, “조선족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7권 1호(2014), pp.89~112 참조.

이와 함께, 통합적 대학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들이 다소 학생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생 간의 교류와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변 과기대는 수업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⁴⁴⁾ 현지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수들은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 식사 초대 등을 통하여 사제 간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서로 다른 학생들 간 우호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행사되는 공동체적 통합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공동체적 특성을 교직원 집단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적지 않은 분화와 단절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 설립 초기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직원 간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여러 모임과 행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데에 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점차 약화되며 소원해진 모습을 보였다.⁴⁵⁾ 특히 교직원 집단 간 부분적인 접촉 단절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단절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 차이 속에서 각 언어나 문화권 별로 학내 여러 개의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따라 기능을 분리하여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개별 집단주의적 의견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⁴⁶⁾

44)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07-2008』; (http://www.yust.edu/ysm/kr/campus_manual).

45) “[교직원 친목도모 모임으로] 체육대회도 있어요, 야유회라든가. 1년에 한번씩. 가을엔 체육대회, 봄에는 야유회. 요새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꼬박꼬박 갔어요.” 교직원 인터뷰(익명5) (2014년 7월 18일).

46) “저희 학부에서만, 다른 학부 교직원들이랑 교제를 거의 안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안에서만 친교 하고... 저희는 다른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냥 저희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학부에서] 관여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직원 인터뷰(익명3) (2014년 7월 24일).

3. 자율성 문제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는 연변과기대의 운영과 관련한 자율성 문제다. 애초 ‘중외합작대학’으로 설립되었고 연변대학의 한 ‘단과대학’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학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대학의 교육 기능과 행정 기능은 엄밀하게 나뉘어져 있고 행정 부문은 외국인이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중국인이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권한이 주도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1〉 교직원 구성과 역할

교직원 구분	기관	담당업무	인원	합계
외국인	대학	교학	184	235
		행정	26	
	부설	교학	21	
		행정	4	
중국인	대학	교학	23	152
		행정	126	
합계				387

출처: 연대과학기술대학;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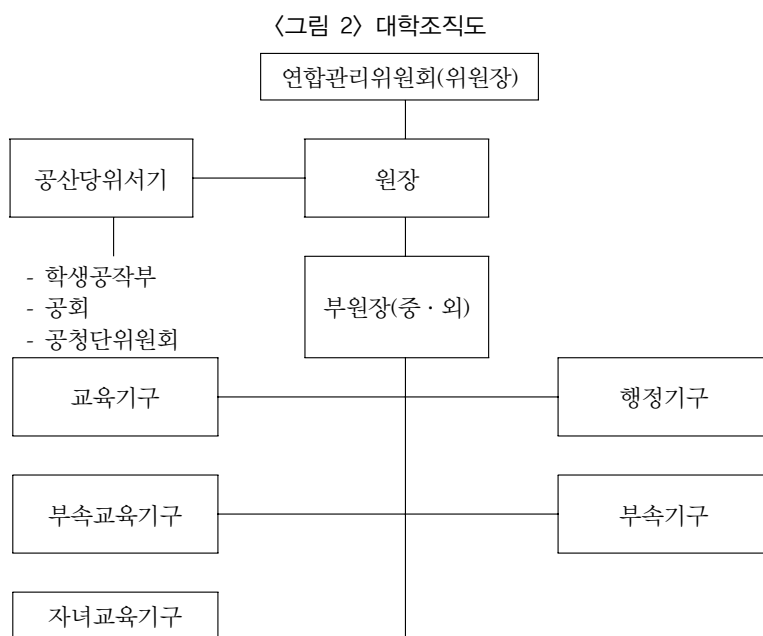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듯 외국인의 경우 수업을 담당하는 교학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재무나 회계, 교육 당국과의 공문 협조 등 일반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문은 중국인 교직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자국의 업무 처리 방식에 익숙한 현지인들 중심으로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해외에서 유입된 지적 자원으로서 외국인 교수들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이원 체계는 일견 합리적인 분업이라 할 만하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서 각자의

특화된 능력에 따라 업무 체계를 조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시킨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에 따른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학 행정 업무와 관련된 대학의 독자적 자율성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조직은 세부적으로 연합관리위원회, 원장, 공산당서기(학생공작부, 공회, 공청단위원회), 부원장(중방, 외방), 교육기구, 행정기구, 부속교육기구, 부속기구, 자녀교육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관리위원회는 대학의 최상위 기구로서 주요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구성원을 임용, 선임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원장·부원장의 초빙 및 해임, 매년 사업 계획 비준, 예산·결산 심사, 행정관리기구 조직 결정, 교직원 편제 및 임금 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학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합작대학의 두 당사자인 연변대학과 연변과기대의 대표 교직원단이 함께 참여하는데, 최고 진행자인 주임 직분은 ‘을’, 즉 연변과기대에서, 부주임은 ‘갑’인 연변대학에서 지정된 자들이 맡아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⁴⁷⁾ 연변대학 및 정부와 연계하여 주요 사안의 행정을 결정하는 학내 최고 행정관리자는 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 원장 직계 산하에 위치하는 공산당위 서기는 학생공작부, 공회, 공청단위원회와 같은 학내 공산당 단위를 지도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정치적 사상 및 행위를 총괄한다. 이들 직위의 경우 중국 당 정부의 임명을 통해 부여되기 때문에, 학교의 또 다른 구성주체로서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들은 이들에 대한 결정 권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연변과기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 자체의 정책적 특성으로, 합작학교의 구조 속에서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담보하기

47) 연대과학기술대학, “연대과학기술대학 학교운영 정관”; <<http://www.yust.edu/ysm/board/bbs/lists/tid/2/bid/12/>>.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⁴⁸⁾



출처: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 (http://www.yust.edu/ysm/kr/campus_manual).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안은 학생 모집이다. 연변과기대의 학생 모집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연변대학 전체의 입학생 선발에 연동되어 있다. 즉 연변대학이 ‘총교(總校)’로서 학생 선발의 책임을 담당하고 학생들 역시 연변대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단과대학을 1, 2지망으로 선택한다. 연변대학의 단과대학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연변과기대 역시 이런 절차를 통해 학생을

⁴⁸⁾ 이영환·임재진, “합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3호(2014), pp.121~148.

선발하게 된다.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변대학과의 ‘협력’이라는 틀이 외부의 제약이나 준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합관리위원회의 경우, 연변대학에서 파견된 연변과기대 원장이 연합관리위원회 주재권을 소유하는 데 반해,⁴⁹⁾ 최종결정권은 한국계 미국인인 총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학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교적 동등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연계되는 최고 의사 전달 과정은 연변대학에 일임함에 따라, 보다 상위 기관에 대한 교류 협력에서는 외국인의 접촉이 일정 정도 제한되고 있었다. 이런 자율성의 문제는 법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I. 결론

연변과기대는 동북아의 탈냉전,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대학이다. 이 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국경과 민족, 이념과 정치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내는 데에 기여할 비전을 표방했다. 전지구의 코리안 연결망 구축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이들의 기대와 희망을 대학의 비전과 특성으로 결합시켰다. 전 교직원이 인격공동체라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대화와 소통,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면모도 크게 주목을 끌었다. 최근 평양과기대까지 설립·운영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가히 ‘원대한 실험’이라고 불러도 좋을, 흥미롭고도 소중한 시도였다.

⁴⁹⁾ 연대과학기술대학, 『연대과학기술대학 규정집』(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2).

연변과기대는 중외합작대학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 자율성과 독립성에 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과 운영 면에서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는 있으나 동시에 연변대학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만 정부 당국과 소통할 수 있으며, ‘중방(中方)’과 ‘외방(外方)’이 병존하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대학공동체로서 뚜렷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층위에서 적지 않은 차이도 생겨나고 있다. 언어를 달리하는 구성원이 함께 활동하게 될 때에는 다국적, 다문화적 감수성이 자라나고 통합의 기회가 나타나는 동시에 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정서적 친밀감의 약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도 분절적인 층위들은 향후 대학 단위의 공동체성이나 통합이 논의될 때에 대학 구성원 내부의 분화, 집단별 또는 개인별 편차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전면적 현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제성과 민족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대학의 고유한 가치를 고수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의 문제는 현재 연변과기대가 직면한 중대한 쟁점이다. 외부 환경이 점점 더 국제화될수록 국제성에 대한 대학 내부 구성원과 외부의 평가 사이에 인식과 기대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도 동질적 가치의 공유 이외에 구성원들의 다원적인 기대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성의 정의(definition)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수진의 다국적 배경이나 다중언어의 사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교과목과 강의 내용, 학술 활동 등에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더욱 수용하는 것도 요구될 것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배경과 희망들이 20여 년의 시간 동안 분절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과 인적 연결망을 어떻게 지속해 갈 것인가도 극복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연변과기대는 “연변에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 연변과기대의 민족적·국제적 코드를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협력, 교류와 통일의 영역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⁵⁰⁾ 연변과기대가 21세기 미래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과 문화의 허브로 작용할 수 있다면 분명 ‘국제적 민족대학’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목표를 자임하는 것만으로는 고유한 위상이 확보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연변과기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연변과기대가 독자적인 특징으로 강조해 온 국제성과 민족성의 결합,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이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부응하여 이를 재창조하고 재구성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은 언제나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이 동반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인적, 물적, 문화적 이동과 소통의 현장 가운데서 민족성과 국제성을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대학 공동체의 독자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성공한다면, 연변과기대는 단순히 국제적 민족대학이라는 모델의 구축에 그치지 않고 민족적 가치와 다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포용하면서 동아시아 및 남북한 평화와 공생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중요한 지적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15년 5월 7일 / 심사 : 2015년 5월 22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22일

50) 보도에 의하면 김진경 총장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 연변과기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협동의 양질을 한층 높이며 동아시아에 있는 고등교육기구들 간에 다차원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뉴시스』, 2014년 8월 1일자.

【참고문헌】

국문·일문 단행본

- 구자익·박영진·안병환.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6.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역음.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서울: 학연문화사, 2012.
- 윤인진.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허련순. 『사랑주의』. 서울: 흥성사, 2012.

국문 논문

- 권오국.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1호(2011), pp.229~269.
- 김광선·정종대. “KOICA 지원 ‘르완다 국립대학 ICT 공학부 건립’ 소개.” 『공학교육연구』 제20권 4호(2013), pp.34~39.
- 김미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2014), pp.269~302.
- 김범규·주철안. “학교공동체의 개념적 요인 탐색.” 『지방교육경영』 제11권(2006), pp.1~20.
- 김진영. “국제 대학 순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 pp.1~26.
- 김태현. 『한국 문화산업 국제경쟁력 연구(韓國文化産業國際競爭力研究)』. 지린대학교 박사논문, 2012.
- 김화선. “조선족 농민의 비농화와 국제이주: 연길시 M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36집(2012), pp.149~186.
- 류승아. “대학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사회 및 성격』 제28권 3호(2014), pp.43~60.

- 박명규. “북경의 조선족-심층면접자료의 분석.”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박미희·홍백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사학회연구』 제20권 제3호(2010), pp.27~50.
- 박종문.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11호 (2013), pp.39~59.
- 박형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개념과 원칙.”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2호 (2011), pp.3~9.
- 서정섭. “중국 엔벤 조선어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16권(2005), pp.205~230.
- 설동훈.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와 미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엮음. 『노동인력의 세계화』.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pp.225~248.
- 설동훈.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공의료정책특론 특강. 2011년 10월 12일.
- 이성일. “조선족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7권 제1호(2014), pp.89~112.
- 이영환·임재진. “합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5권 3호(2014), pp.121~148.
- 이재하·김석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2007), pp.461~475.
- 이충배·박선영. “중국 동북3성 기점 국제복합운송루트 개발과 발전 방안.” 제23집 제4호(2007), pp.91~114.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2006), pp.258~298.
- 최경봉. “중국 내 조선·한국학의 특성과 위상.” 『국어국문학』 155호(2010), pp.103~131.
- 최상덕.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주요 연구 및 사업 추진방향.” 『교육개발』 제37권 4호(2010), pp.27~31.
- 황지환.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한반도 리더십 변수의 재검토.” 『국제관계연구』 제18권 1호(2013), pp.39~65.

외국어 단행본

- Bryk, S. Anthony, Valerie E. Lee and Peter B. Holland.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de Wit, Hans.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Westport, Conn. ; London : Greenwood Press, 2002.
- Sergiovanni, T.J.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4.

영문 논문

- de Wit, Hans.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vol. 70 (Winter 2013), pp.6~7.
- Frale, Deborah E. S. "Gender, Racial, Ethnic, Sexual, and Class Ident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1997), pp.139~162.
- Blau, Peter M. "A Theory of Social Integ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5, no. 6 (1960), pp.545~556.
- Gail Furman. "Postmodernism and Community in School: Unrabeling the Paradox," Gail Furman ed. *School as Community: From Promise to Practi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 Knight, Jane, and Hans de Wi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ed. Hans de Wit. Amsterdam: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995.
- Knight, Jane.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ane Knight and Hans de Wit, eds.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Amsterdam: EAIE/IDP, 1997.
- Knight, Jane. "An internationalization Model: Reponding to New Realities and Challenges." Hans de Wit, Isabel Christina Jaramillo, Jocelyne Gacel-Ávila, and Jane Knight eds.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The International Dimension*. Washington, DC: World Bank, 1~38, 2005.
- Lounsbury, J. W., and D. DeNeui.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1996), pp.381~394.
- Mayor, Federico. "Culture and the University." *Higher Education in Europe*, vol. 1, no. 5 (1989), pp.5~13.
- McMillan, David W. and Davi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1986), pp.6~23.

權香淑 『移動する朝鮮族: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東京: 彩流社, 2011.

신문 기사

“[박식] 中國조선족高校長회의 후세교육 母國지원요청.” 『연합뉴스』. 1994년 2월 28일.

“[엔벤] 조선족자치주 60년 졸업생 전세계 진출…개교 20년만에 ‘엔벤의 자랑.’” 『국민일보』. 2012년 9월 7일.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 ‘우리대학에 동아시아 공동센터 만들자.’” 『뉴스스』. 2014년 8월 1일.

“연변과기대 졸업생 백98명 첫 배출.” 『동아일보』. 1997년 7월 3일.

“延邊에 朝鮮族 기술대학 세운다.” 『매일경제』. 1991년 10월 31일.

“延邊과학기술대학, 9일 정식 開校, 국내외 동포성금으로 설립.”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延邊과학기술대학, 9일 정식 개교, 韓國語로 강의.”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在美교포—中國 합작 延邊에 大學 세운다.” 『동아일보』. 1993년 1월 27일.

“中 엔벤자치주 조선족 인구 계속 감소…비율은 상승.” 『연합뉴스』. 2005년 3월 10일.

“한국 속의 중국인 ‘레인보 차이나’: 3. 진화하는 국내 조선족.” 『동아일보』. 2013년 1월 15일.

인터넷 자료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教育部予以資格認定的中外合作辦學單位” (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detail/389#>>.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학부 중외합작기구 및 프로그램(本科中外合作辦學機構與項目[含內地與港台地區合作辦學機構與項目]名單)” (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orglists/2>>.

연대과학기술대학 홈페이지; <<http://www.yust.edu/>>.

IJGEM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ngineering and Management); <<http://www.ijgreen.org>>.

기타 자료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大學要覽 2010-2011』. 延吉: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연대과학기술대학. 『연대과학기술대학 규정집』. 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2.

교직원 인터뷰(익명1). 2014년 7월 18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2). 2014년 7월 18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3). 2014년 7월 22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4). 2014년 7월 24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5). 2014년 7월 24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6). 2014년 7월 24일. 연변과기대.

The Vision and Reality of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Its International, Ethnic-oriented, and
Community-integrated Characteristics

Park, Myoung-Kyu · Lim, Sujin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has realized its distinctive vision as an “international ethnic university” in the era of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As substantiating its vision over 20 years of history, this university has shaped its educational system for its vision, and maintained its identity under social changes and globalization. This article shows how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enabled this university to be founded, and in this process how its vision was shaped in terms of the Korean diaspora,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Korean-Chinese community. Further, it analyzes how three characteristics of YUST - international, ethnic-oriented, and community-integrated -, as its vis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this university, have been altered in the sudden changes of both Chinese society and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Under these cha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university, its international and ethnic-oriented visions have now started to be gradually weakened,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 the disinteg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university community members. Nevertheless, if YUST overcomes the current challenges, it will be able to be the epochal and leading model of an ethnic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Key words: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college community, internationalization, Korean Chinese, community integration

박명규(Park, Myoung-Kyu) _____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개념의 번역과 창조』(공저)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공저) 등이 있다.

임수진(Lim, Sujin) _____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석사학위 논문은 “A Study of the WTO’s Impact on China’s Social Policies in Relation to the Social Welfare Model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이다.